

광주·전남 '상생 정신' 어디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연구개발특구·자동차산업단지 등 유치 경쟁 치열
시·도, 정부 공모 사업 비전과 미래 공유해 상생 차원 공동대응 나서야

각종 사업공모와 함께 강소특구 지정, 자동차 관련 산업 육성 등 정부가 추진하는 신규 정책·사업에 있어서 광주와 전남도가 사전 협의하는 상생의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열악한 재정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지원금을 부담해야 하는 부작용을 낳은 '한전공대 유치전'을 계기로, 광주와 전남이 상생의 기초 속에 지역발전을 함께 모색하는 성숙한 행정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자치, 지방분권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 간 무한 경쟁을 촉발하는 정부의 공모사업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광주와 전남도에 따르면 오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의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사업 공모에 광주와 전남도가 모두 참여한다. 전남권, 경남권 등 권역별로 1곳씩 들어서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국비 78억원, 지방비 78억원 등 156억원이 투입되며, 민간에서 제공되기 어려운 장애아동에 대

한 공공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광주시는 장애아동을 위한 서비스 수요가 많다는 점을, 전남도는 어린이 의료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며 전남도내 장애아동이 근접거리에서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개발특구 조성을 놓고도 광주와 전남도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광주시는 최근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된 AI(인공지능) 집적화단지, 국립심혈관 센터 등을 중심으로 광주 북구·광산구, 장성군 진원면·남원 일원 개발제한구역 379만7000㎡에 연구개발특구를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에 반해 전남도는 광주연구개발특구의 확대를 통해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내 한전공대를 중심으로 한 2km에 강소특구를 지정하는 용역을 발주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 외에도 광주시는 현대자동차와 합작투자하는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사업' 대상지인 빛그린

산업단지에 친환경자동차산업 집적화 단지를, 전남도는 영암군 삼호읍 일원에 미래 레저형 친환경자동차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과 미래형 자동차 산업 연구단지를 중심으로 레저형 친환경 자동차 연구개발, 기업지원센터 구축, 사업화 지원 등에 나설 방침이다. 유사한 사업이지만 광주시와 전남도가 상호 역할의 분담, 시너지 효과 증대 등을 위한 협의 등이 아쉬운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현 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기반시설, 산업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광주·전남이 공동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역대학 한 교수는 "정부의 공모나 신규 정책 및 사업에 있어서 광주와 전남이 다른 지역과 달리 공동대응해 나간다면 현재 권역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필요한 경쟁은 없어질 것"이라며 "권역 내 중추도시인 광주와 이를 뒷받침하는 배후지역인 전남이 지역비전과 미래를 공유하면서 정부에 정당하게 요구한다면 정부 역시 큰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내일 새벽 한미정상회담 북미협상 돌파구 찾는다

미국 '일괄타결'·북한 '단계적 해법' 간극 좁히기에 성과 달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 1박 3일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DC 공식 실무 방문길에 올랐다. 문 대통령의 방미는 지난해 9월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했을 때 이어 취임 후 다섯 번째다. <관련기사 2면>

문 대통령은 이번 방미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담판이 결렬된 후 교착 상태인 북미간 비핵화 협상의 동력을 살리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10일(이하 현지시간) 오후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해 영빈관에서 하루를 묵는다.

문 대통령은 이튿날인 11일 오전 영빈관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을 만나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정오부터는 트럼프 대통령과 2시간 가량 정상회담을 갖고 구체적인 비핵화 해법 등을 논의한다.

회담은 정상 내외가 참석한 가운데 친교를 겸해 열리는 단독회담에 이어 양측의 핵심 각료와 참모

들이 배석해 진행되는 확대회담 및 업무 오찬 순서로 진행된다. 특히, '일괄타결'을 주장하는 미국과 '단계적 해법'을 주장하는 북한의 입장을 두고 한미 정상이 얼마나 양국 사이의 간극을 좁히느냐가 회담의 성패를 가르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연속적 조기 수확'(early harvest) 방안을 내놓은 만큼 문 대통령은 회담에서 '단계적 대북 보상' 방식을 거론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미국이 '비핵화 전 제재 유지' 입장을 고수해 온 만큼 문 대통령의 이런 구상이 관철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한편, 김 여사는 11일 오전 현지 초등학교를 방문한 뒤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단독 오찬을 한다. 한국 대통령의 방미 시 한미 정상 부인이 단독으로 오찬을 하는 것은 30년 만이다. 문 대통령 부부는 워싱턴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11일 오후 탈레스 국제공항에서 출발해 한국 시각으로 12일 밤늦게 서울공항으로 귀국한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5·18 역사체험 10일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 5·18자유공원 역사체험 프로그램에 참석한 학생들이 진압군에 의해 끌려가는 밀랍 조형물 앞에서 1980년 당시 참혹한 5월의 상황을 해설사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금호, 오너일가 지분 담보 5천억 요청 "3년 내 정상화 실패 땀 아시아나 매각"

채권단에 자구계획 제출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박삼구 전 회장 일가의 금호고속 지분을 전량 채권단에 담보로 맡기겠다고 밝혔다. 또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 등을 포함한 자산을 매각하기로 했으며, 이를 대가로 채권단에 5000억원의 유동성 지원을 요청했다.

금호아시아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10일 금호아시아나 측이 이같은 내용의 자구계획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금호아시아나가 채권단에 담보로 맡기겠다는 금호고속 지분은 부인과 딸의 보유지분 4.8%(13만 3900주)다. 금호아시아나는 금호타이어 지원을 조건으로 박 전 회장과 아들 박세창 아시아나HDT 사장의 금호고속 지분 42.7%도 담보로 맡긴 상태다. 금호아시아나는 채권단이 이 담보를 해제할 경우 박 전 회장과 박 사장의 금호고속 지분을 다시 담보로 맡기겠다고 했다.

산은 관계자는 "아직 금호타이어 관련 대출이 남아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부인과 딸의 지분만 신규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금호아시아나는 아시아나항공 수익성 개선을 위해 보유 항공기를 팔고 비수익 노선을 정리하는 한

편, 인력 생산성도 높일겠다고 다짐했다.

금호아시아나는 자구계획 이행 대가로 5000억원의 신규 자금지원을 채권단에 요청했다. 이를 활용해 그룹이 직면한 유동성 위기를 타개하겠다는 것이다. 금호아시아나가 올해 갚아야 할 채무 1조 2000억원 가운데 4000억원은 채권단의 대출금이다. 이를 상환 유예·연장하는 내용으로 재무구조개선 약정(MOU)을 다시 맺자고 했다.

채권단 대출금은 아시아나항공 자회사 등을 비롯한 그룹 자산을 매각해 갚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자구계획을 이행하는 기한은 3년으로 제시했다. 3년 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채권단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아시아나항공을 팔아도 좋다고 했다.

금호아시아나 관계자는 "(자구계획안은) 그룹의 모든 것을 걸고 아시아나항공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산업은행과 협의해서 아시아나항공 정상화에 성심, 성의껏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산은은 금호아시아나가 제출한 자구계획을 검토하기 위해 채권단 회의를 열기로 했다. 다만 채권단이 지난 6일 만료될 예정이던 기존 MOU를 연장하면서 자구계획 제출 내용을 물밑에서 조율해온 만큼, 이번 자구계획이 수용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 전라도는 임시정부의 '비밀금고'였다 ▶3면
- 세계 미술관 기행 - 영국박물관 ▶18면
- 손흥민 결승골 ... 챔스 8강 1차전 MOM ▶20면

생명의 땅, 으뜸 전남
Land of Life, Best Jeonnam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청정지역, 맛의고장 전라남도!
여유롭게 힐링하며 느껴 보세요!!

신청기간 | (1차) '19. 3. 18. ~ / (2차) '19. 7. 1. ~

운영기간 | (1차) 4. 15. ~ 7. 14 / (2차) 8. 15. ~ 11. 14.

운영장소 | 농산어촌 체험마을·농가 30개소

신청방법 | live.jeonnam.go.kr 인터넷 신청

참가기간 | 5일 ~ 60일까지 가능

참가자격 | 전남 외 지역 거주자(주민등록 기준)

참가비용 | 숙박, 농어촌 체험·교육 등 무료
* 식사, 교통비 등 생활비 자부담

주요내용 | 주민만남, 문화관광지 탐방, 귀농귀촌교육 참여, 선도·귀농 농가 견학, 일손돕기, 재능기부 등

문의전화 | 1577-1425

전라남도